

마쓰다산업, 유한한 자원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다

유한한 자원은 결코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 아래 설립된 마쓰다산업은 귀금속 회수, 식품 공급 확보, 그리고 간과된 가치의 재발견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구축해 왔다. 오랜 철학은 이제 자원 의식이 높아진 세계의 요구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By Daniel de Bomford, Bernard Thompson and Cian O'Neill



마쓰다산업은 장인의 직관과 정원사의 인내로 성장해 왔다. 가치 있는 것은 결코 낭비되어서는 안 되며, 정성스럽게 가꾼 것은 세대를 넘어 지속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철학이다. 1935년 설립 이후 이 일본 기업은 유한한 자원은 현명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기업은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사회 기여를 통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단순한 원칙을 따라왔다. 수십 년에 걸쳐 이러한 윤리는 귀금속과 식품이라는 서로 다르지만 밀접하게 연결된 두 분야에서 구체화되었고, 마쓰다산업은 한계로 보일 수 있는 곳에서 가치를



마쓰다산업의 다양한 귀금속 제품

회복하고 유용성을 되살리며 지속 가능성을 구축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오늘날 마쓰다산업은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대규모 기업으로 성장했다. 자원 회수의 역사는 1948년 지역 마요네즈 공장에서 버려지던 달걀 흰자를 가마보코 제조업체에 공급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51년 현재의

형태로 회사를 설립하며 인쇄 공정에서 회수한 은을 정제했고, 이는 '모타이나이' 정신과 낭비 없는 삶의 철학을 구현한 사례였다. 이 회사는 산업 주변부에서 활동하는 틈새 재활용 기업이 아니다. 오랜 철학을 현대 제조업과 식품 시장을 동시에 지원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전환한 다각화된 그룹이다.

회사의 구조는 마쓰다산업을 차별화하는 요소 중 하나다. 사업은 크게 귀금속과 식품 두 부문으로 운영된다. 언뜻 보기에는 이 조합이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두 사업은 동일한 운영 철학을 반영한다. 하나는 높은 기술적 정밀도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소재를 회수·정제·공급하는 데 기반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신뢰와 안정성이 중요한 산업에서 조달·품질 보증·안정적 유통을 중심으로 한다. 이 두 축은 회사를 단순한 재활용 기업이나 상사 이상의 존재로 만든다.

“개인적으로 저는 무엇보다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객 우선과 사람 우선입니다.”

마쓰다 요시아키, 마쓰다산업 대표



www.matsuda-sangyo.co.jp/en

핵심 부품을 위한 귀금속
귀금속 사업은 여전히 회사 이야기의 중심에 있다. 마쓰다산업은 이 사업을 단순한 재활용이 아닌 회수, 정제, 분석, 화학 제품, 가공 제품, 클로드 루프 솔루션까지 포괄하는 종합 자원 순환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왔다. 생산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자기기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부터 귀금속을 회수해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형태로 산업에 다시 공급



마쓰다산업 식품 원료의 예시 이미지

하는 가치 사슬 전반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는 특히 순도가 핵심인 반도체와 전자 산업에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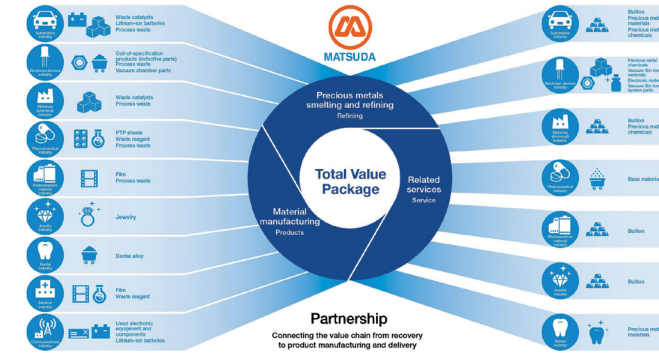


요하다. 마쓰다 요시아키 대표는 재활용 금속이 원재료보다 열등하다는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수십 년간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십 년에 걸친 정제 기술을 통해 신규 광석에서 얻은 소재와 동등하거나 경우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순도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수준의 품질은 마쓰다산업이 순환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첨단 제조업에서는 재활용 소재가 신규 광물과 동일한 수준의 성능을 발휘할 때만 의미를 가진다. 마쓰다 대표에 따르면, 회사는 바로 이 장벽을 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마쓰다산업의 귀금속 잉곳

“약 30년에 걸쳐 우리는 신규 소재보다 훨씬 낮은 농도의 불순물까지 검출하고 제거할 수 있는 분석 및 정제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는 마쓰다 산업 가치 제안의 기술적 핵심을 보여준다. 제조업체들은 다양한 출처에서 회수된 재활용 금속의 일관성 부족을 우려해 신규 소재를 선호해 왔



귀금속 사업 부문 개요

다. 그러나 마쓰다 대표는 분석과 불순물 관리에 대한 장기적 투자가 이러한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도금 용액과 증착 재료 같은 귀금속 제품은 최고 수준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반도체와 전자 부품 분야에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탈탄소화, 공급망 안정성, 그리고 순환경제



Supporting the TCFD recommendations

리고 순환경제

이러한 의미에서 마쓰다산업의 중요성은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선다. 회사는 탈탄소화, 순환경제, 공급 안정성, 반도체 소재의 전략적 중요성 증가라는 주요 산업 흐름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다. 귀금속 사업은 정제 역량, 클로드 루프 솔루션, 인증된 재활용 금 제품 등을 강조하며, 이는 기술적 우수성과 함께 추적 가능성과 환경 성과를 중시하는 시장 흐름을 반영한다.

마쓰다 대표는 또한 회사의 강점을 일본의 broader context 속에서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여러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재활용 국가 중 하나입니다.”라고 말하며, 일본 산업 구조가 이러한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제철, 구리 정제, 시멘트 생산이 좁은 지역 안에 집중되어 있어 산업 간 자원 이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폐기물이 다른 공정의 원료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산업 집적은 일본 재활용 산업이 환경적 필요성과 실용적 산업 시스템으로 동시에 발전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

그러나 그는 이 과정을 낭만적으로만 보지는 않는다. 재활용 역시 환경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환경적 효과는 소재 분리와 처리의 효율성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사전에 소재를 더 잘 분리할수록 이후 고온 처리의 온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전처리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최소한의 환경 부담으로 효율적인 금속 정제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지속가능성 전략은 추상적 이상이 아니라 공학적 규율에 기반한다. 더 나은 분류, 더 나은 전처리, 더 나은 회수는 실



기후변화 설문에서 2년 연속 “CDP A List” 선정

제로 배출을 줄이고 자원 효율성을 높인다. 회사는 이러한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성과도 구축해 왔다. ECO 시리즈는 100% 재활용 금을 사용하며 UL Japan 인증을 받았고, 탈탄소 목표 설정과 기후 대응 활동에 대한 인정도 받았다. 이는 마쓰다 산업의 산업 전략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시스템과 기준, 외부 검증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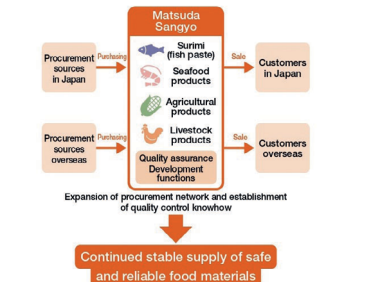
식품 순환의 완성

귀금속 사업이 마쓰다산업의 기술적 정체성을 보여준다면, 식품 사업은 회사 DNA의 연속성을 드러낸다. 마쓰다 대표는 회사의 초기 역사를 설명하며 마치 너무 완벽하게 들릴 정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당시 인근 회사가 마요네즈를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노른자만 사용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버려지던 흰자를 제 조부가 무료로 받아 가마보코 제조업체에 판매했습니다. 원재료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수익성 있는 부업이 되었고, 그것이 식품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재활용 사업을 움직이는 것과 같은 직관, 즉 버려지는 소재를 폐기물이 아닌 기회로 보는 시각이 식품 사업에도 적용된 것이다.

우연처럼 시작된 이 사업은 오늘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주요 사업 부문으로 성장했다. 현재 마쓰다산업의 식품 부문은 수산물, 채소, 육

신뢰의 원천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사업 운영의 규율을 강조했다. “우리는 강력한 품질 보증 및 추적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마쓰다는 말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원재료 단계까지 원인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역량은 특히 냉동 및 가공 식품처럼 복잡한 공급망을 가진 현대 식품 산업에서 필수적이다. 이는 또한 회사의 핵심 경쟁력을 보여준다. 제품이 전자산업용 귀금속 소재이든 산업용 식품 원료이든, 마쓰다산업은 품질과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경쟁한다.

이 두 사업의 공존은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마쓰다 산업은 유행하는 개념 중심으로 조직된 기업이 아니라, 규



식품 사업 부문 개요

율 중심으로 조직된 기업이 다. 귀금속과 식품 모두에서 회수, 조달, 정제, 검증,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 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두 사업은 우연한 조합이 아니라 일관된 구조로 느껴진다. 각각은 부족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시장이 더 잘 작동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유한한 자원, 친환경 생산, 공급망 안정성이 중요한 시대 속에서 마쓰다산업의 긴 진화 과정은 실질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 은 회수와 남은 달걀 흰자에서 시작된 사업은 순환, 정밀성,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현대적 기업으로 발전했다. 산업 기업으로서 이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방식이다.



DRIVING AMBITIOUS CORPORATE CLIMATE ACTION Emissions reduction targets approved by SBTi